

해남 겨울배추 조기출하 어렵다

이상기온 작황부진… 70~80%는 외지인에 밭폐기로 팔려

지난 9월말 수급불균형으로 배추값이 포기당 1만원이 넘어서는 등 전경부지로 치솟자 급증 대책중의 하나로 제시됐던 해남 겨울배추 조기출하가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작황이 부진한데다가 재배 면적의 70~80%가 외지상인에게 밭폐기로 이미 팔려버렸기 때문이다. 농협 계약재배 면적은 8%에 그쳐 수급안정 불량으로는 턱없이부족하다.

17일 해남군에 따르면 매년 1월 생산하는 겨울배추 조기 출하를 위해 영양제를 살포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지만, 지난달 26일부터 나흘간 이상

한파가 이어지면서 냉해피해가 발생하는 등 생육이 원활치 않은 상태이다.

또 저장불량을 제외한 겨울배추 70~80%는 외지 상인에게 밭폐기로 팔려 조기출하는 이들의 손에 맡겨져 있는 등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함께 김장용 가을배추는 7~10일 정도 정식(定植) 지연으로 속이 제대로 차지 않아 아직 상품성이 없으며 지난달 말 갑작스런 한파로 냉해피해가 났다.

또 ‘배추무사마귀병’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p 정도 증가해 단위면적당 수확량감소도 예상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외지상인들이 포기당 1200원씩을 주고 밭폐기로 산겨울배추 도매가격이 2000원 이상 형성되거나 않으면 조기출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김장용 가을배추 작황도 부진한데 겨울배추마저 조기출하가 불투명해 배추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을배추 생산예상량은 14만 7800여t으로,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된다.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겨울배추는 30만 5000여t으로, 내년 1월부터 4개월간 생산될 예정이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생태환경 사진공모 최우수상 ‘짱뚱어 투호’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394점이 응모해 우수상에 최도영(광주)씨의 ‘백로와 함께 차차차’, 정진근(광주)씨의 ‘물총새의 비상’ 등 16점이 입상했다.

전남도가 주최한 ‘제1회 생태환경 디지털사진 공모전’에서 여수 최용고씨의 ‘짱뚱어 투호’이

〈전남도 제공〉

전남 농작물 중 ‘파프리카’ 소득 가장 높아

오이·고추·顺… 노지작물은 무화과가 최고

전남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농작물은 파프리카(착색 단고추)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지재배 작물 중에서는 무화과가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전남도의회가 내놓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업진흥청이 전남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51개 작목의 지난해 수익성을 조사한 결과, 시설재배 작물의 경우 파프리카가 1년에 10a(300평)를 기준으로 1494만 297원의 소득을 올려

1위를 차지했다. 파프리카의 수익성은 전년도(2008년 627만 8813원·11위)보다 크게 올랐다.

오이(총상)는 1300만 4851원으로 2위에 올랐고, 고추(1289만 7153원)·호박(1051만 8797원)·딸기(반죽성·862만 7056원)·딸기(촉성·836만 9589원)·장미(825만 9677원) 등의 순이었다.

또 호박(억제·725만 9307원)·오이(반죽성·697만 7399원)·멜론(촉성·692만 2290원)·시설나리(618만 111원)

원)·시설가지(605만 6968원) 등도 10a당 600만~700만원 수준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밭작물(비닐재배 제외) 중에서는 무화과가 10a당 462만 7371원의 소득을 올려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구기자(385만 6211원)·참대(377만 5820원)·복승자(280만 2614원)·단감(183만 8392원)·매실(142만 423원)·고구마(141만 8544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맥주보리는 소득이 17만 8624원에 불과하고 시설 무는 89만 1341원으로 나타났다.

김자기기자 dok2000@kwangju.co.kr

목포 하당의 랜드마크인 ‘평화광장’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평화광장은 해양문화축제 등 목포를 대표하는 축제는 물론 주말마다 크고 작은 공연과 행사들이 펼쳐지는 등 하당의 명소로 자

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주무관청인 목포시청 공원과,

건설과, 문화예술과 등에서 관리

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의 관리

도 문제지만 우선 시민들의 시민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모든 문

목포 ‘평화광장’ 브랜드 가치 높여야

리 잡은 지 오래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춤추는 바다분수’가 본격 가동되면서 평화광장의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다.

평화광장은 목포시민들의 자산임에

틀림없다. 시민 휴식

공간이 부족한 현실속에서 ‘삶의 질’ 제고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화광장 양쪽에 위치한 매점주변에 쓰레기들이 낙농

굴어 미관을 해치고, 주변 조경수

와 펜스는 행사때마다 수난을 당하고 있다. 관리가 제때 안 돼 곳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 평화광장 관리부서도 일원

제가 상당 부분 성숙한 시민의식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광장의 부가 가치를 높여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다면 결국은 목포시민들의 손실이다.

민·관 모두가 평화

광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지름길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투자를 늘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좀 더 세심한 관리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망각선 안 된다.

/lyc@kwangju.co.kr

임영춘

〈서부취재본부 기자〉

물 좋고 안전한 해수욕장은 바로 이곳

신안 우전·목포 외달도·고흥 남열, 3곳 우수해수욕장 선정

고흥 남열·목포 외달도·신안 우전 해수욕장이 올해 우수 해수욕장으로 꾸몄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올해 개장한 전국 316개 해수욕장을 상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서류심사·현장조사 등을 거쳐 전남 3곳 등 우수 해수욕장 2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된 해변은 전남 해변사이트와 국도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대내적인 홍보가 이뤄지며, 편의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전남(남열·외달도·우전) 외에 부산(광안리·대포), 인천(하나개), 울산(일산), 강원(경포대·속초·화진포·동호), 충남(춘장대·무

창포), 전북(선유도), 경북(월포·대진), 경남(학동·송정), 제주(이호·중문) 해수욕장 등이 꾸몄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해수욕장의 경우 ‘다시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정비 및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김자기기자 dok2000@kwangju.co.kr

현지가동중

핸드폰 : 011-612-2823

이메일 : diid71@hanmail.net

•위 치•

함평 학교 농공단지내

•대 지•

6,345m²(1,920평)

•건 물•

1,685m²(510평)

•전 기•

계약전력 200kW

•호이스트•

3+3ton, 5ton(협의)

현지가동중

현지가동중